

「슈라이엘마헬」의 百年忌 「슈라이엘마헬」과 現代(完)

田元培

그러면 슈라이엘마헬이 現代獨逸에 남겨준 遺産은 무엇일까? 이 問題에 對하여 우리는 여기서 簡單히 對答할 수 없으나, 슈라이엘마헬의 遺産이 現代獨逸의 現實가운데에서 살아 있다는 것은 음즉일 수 없는 事實이라고 믿는다.

政治家나 宗教家나 藝術家나 歷史家나 教育者나 누구를 勿論하고 十九世紀 初葉의 獨逸 精神史를 살펴본 사람이면 그는 모두 슈라이엘마헬의 이름을 記憶하는 것이다. 슈라이엘마헬은 非但 『現代 神學의 祖』일뿐만 아니라 또한 푸로테스탄 同盟이 先驅者였으며, 獨逸精神의 眞正한 □化였다.

.....◇.....

그의 生活에는 間斷없이 變化가 흐르고 잇었으며, 그의 生活과 思想과 사 이에에는 下等의 間隔도 없었다. 學生時代로부터 大學教授 說教師에 이르는 그의 一生中에 그는 한때도 民族에 對하여 두 가지 思想을 가진 적이 없었다.

어떤 學者는 슈라이엘마헬의 『信仰論』과 『宗教論』과의 사이에 矛盾이 잇고, 그의 說敎와 學問上 著述內容과의 方向이 다르다고 非難하는 사람이 잇으나, 그는 슈라이엘마헬의 本質을 理解하지 못한 사람이라 하겠다.

슈라이엘마헬의 宗教論이나 道德論이나 哲學的

世界觀이나 乃至 政治的 設定은 모두 그의 生活 又は 民族的 現實과의 □□을 떠나서는 理解할 수 없는 것이요. 그의 원思想 體系의 根底에는 民族에 對한 굳센 사랑이 흐르고 잇는 것이다.

슈라이엘마헬은 그의 긴 一生을 通하여 한 번도 한자리에 停滯한일이 없었다. 그는 靑年 時代의 『默想錄』속에서 自己의 生活方針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나의 몸이 固定할때까지 永遠히 늙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나는 永遠히 固定치 아니할 것이다. 왜그런고 하니 나는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잇

으며, 또 알기를 願하고 잇는 까닭이다.』

永遠한 青春슈라이엘마헬은 書籍이나 公式을 떠나서 自由스런 精□□□의 깊은 奧底에서 神的 生命의 용소슴치는 소리를 窃聽하고 記錄하는 것이 그의 本意였다.

.....◇.....

그는 自己의 信仰의 自由를 要求하고 哀乞하였다느니 보다 오히려 이 自由를 行使하였다. 그는 基督敎的 信仰을 自己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說明하였다. 그는 一個의 職業的 說敎師로서의 立場에서 說敎한것이 아니라 人間으로서의 獨逸民族으로서의 自己完成을 부르짖었다.

太陽이 비치는 곳에 새로운 것이 없다! 民族生活가운데에 或은

善으로 或은 惡으로 나타나는 힘은 어느 時代에나 變함이 없고 一民族의 健全과 疾患을 形成하는 法則도 過, 現, 未을 通하여 다름이 없거니와 民族的 英雄으로서의 슈라이엘마헬은 오늘날 獨逸精神의 □像을 가장 鮮明하게 反射하고 잇는 永遠한 거울이 되어 잇는 것이다. 그리 하여 이 거울은 오늘날에 있어 서도 獨逸 民族에 現實 形成의 힘이 되어 잇는 것이다. 어디까지든지 外的 權威와 幸福에 屈치않고 自由奔放한 精神下에 民族的 □□□를 爲하여 果敢히 邁進하는 사람은 그 結果가 비록 슈라이엘마헬의 그것과 달르다 치더라도 누구나 슈라이엘마헬의 遺言 執行人이 될 수 잇는 것이다.

.....◇.....

슈라이엘마헬의 政治的 說敎는 一世紀를 經過한 오늘날에 있어 서도 現實的 生命을 허실 없이 保存하여 喝采를 받을 것이다. 히틀러의

나치스 黨이 不過 數年동안에 數百萬의 黨員을 擁하여 獨逸政權을 掌握한 것으로써 사람들은 히틀러를 政界의 幸運兒라고 보리라. 그러나 이 事實은 히틀러가 幸運兒라는것 보다 차라리 一世紀 以前 龐대한 獨逸 民族 統一 運動 時代의 愛國主義자 슈라이엘마헬이 뿌린 씨가 오늘날 獨逸 民族 精神가운데에 죽지 않고 굳게 살아 있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아니 슈라이엘마헬의 精神은 獨逸民族의 잇어 地上에 살아 잇는 동안 永遠히 살아 잇을 것이다.

知識과 사랑과 信仰을 모조리 獨逸民族을 爲하여 바친 永遠한 青春 슈라이엘마헬은 獨逸 民族의 悠久한 將來를 通하여 祝福할 선물이라 하겠다.